

전북대, 고품질 한우 연구 '눈길'

한국축산식품학회서 허재영·오재돈 교수 연구 성과 발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한우개량 연구 '이목'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화교 교수)은 최근 한국축산식품학회 제51차 국제 정기학술대회에서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회에 전북대는 '경쟁력 높은 고품질 한우 수출 연구와 고부가 프리미엄 축산 브랜드 개발'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여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회에서 전북대 허재영 교수는 사업단이 질병과 냄새, 분뇨처리, 생산성 저하 등 이른바 축산 4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발표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기술은 양돈 농가에서 대량의 항생제 대신 고농도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사료용·음용용·축산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이 솔루션을 진행한 농가에서 자란 돼지의 구역역 항체 형성률이 99%로 매우 높았으며 일반 돈육 대비 부드럽고 오메가3, 비타민C 등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양 함유되어 있음이 증명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산학협력력을 통해 고품질 돈육 '두지포크' 브랜드를 런칭하고 연구 성과 확산과 산업화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 오재돈 교수는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한우 개량 솔루션을 발표했다. 발표 오 교수는 아미노 고와 마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최근 한국축산식품학회 제51차 국제 정기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캐털리를 사제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축산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로 '유전능력 평가 기술'을 제시했다.

이 기술은 한우 개체별 혈통정보와 도축·번식형질 등을 모두 빅데이터화 하는 유전체정보 활용 기술로, 고품질 한우 개량뿐만 아니라 국가단위 씨소 선발, 친자확인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리아메디케어 최승민 사업장은 프리미엄 고품질 브랜드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통해 유산균 돼지로 알려진 '두지포크' 판매를 위한 차별화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코리아메디케어는 지난 3월 사업단과 MOU를 체결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위한 메디컬-농축산 융합 환경을 만들

기 위해 협력중이다.

이화교 단장은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과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도 학회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학회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들을 접목하여 향후 한국이 세계 축산 식품 산업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선배와의 만남, 취업에 큰 힘이 됐어요"

전북대, 멘토링 박람회 큰 호응

전북대 진수당에서는 선·후배 간의 화기애애한 만남의 장이 펼쳐졌다. 재학생은 먼저 취업한 선배에게 취업 준비 노하우에서부터 대학생활 얘기를 다채롭게 듣고, 선배 역시 자신의 대학생활과 그간 쌓아왔던 경험담을 들려주는 자리였다.

전북대학교는 취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재학생에게 전하고, 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4일 '재학생-졸업생 멘토링 박람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생이 입학하면 졸업까지 평생지도 교수가 배정돼 체계적인 진로 상담이 이뤄지고, 학생처 취업지원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진로 상담 체계, 재학생 선·후배간 멘티-멘토 결연 등 학생 중심의 진로 멘토링 체계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전북대가 이러한 체계를 졸업생과 재학생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멘토링 행사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과 포스코, 현대자동차, 전북은행 등 대기업에 취업한 전북대 졸업생 30여 명이 참여했고, 오후 내내 500여 명의 재학생들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날 졸업생 멘토들은 부스에 자리를 잡고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대학생활을 이야기하고,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소개와 스펙사항, 준비 방향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했다. 선배들을 찾는 학생들은 교수나 전문 직원의 상담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며 앞선 길을 걸은 선배들의 다양한 경험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멘토링뿐 아니라 멘토, 멘티 전체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돼 다양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멘토로 참여한 전진우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 후배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자치 실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자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회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전북과학교육원 교육연수관 2층 대강당에서 교사와 학부모 관련 정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학교자치,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광주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적·현실적인 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장수명 기획단장(국가교육회의의) '2030 미래교육과 학교자치의 의미', 김용 교수(청주교대) '학교 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한 학교자치의 방향과 과제', 정성우 장학관(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의 주요 내용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학교자치,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차성현 교수(전남대)가 좌장을 맡아 김용 교수(청주교대), 정성우 장학관(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성희 학생(전주상업정보고 3), 서현교 사(전남체육중), 장경덕 교장(고산고), 김경희 자부장(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이 참여한 가운데 90분간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원로 역사학자의 혼신 담은 책 '화제'

이규하 전북대 명예교수, 유럽 역사·종교 담은 연구서 펴내

이규하(80)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독일 등 유럽의 역사와 종교 등을 아우르는 연구서를 잇달아 펴내 화제다. 올 1월 논문집인 '원로 역사학자의 독일 현대사 연구(한울)'를 시작으로 3월엔 '유럽의 종교개혁과 신학 논쟁', 그리고 최근 '서양 근세 초의 새로운 모습'까지 3권을 연이어 출간했다.

1972년부터 2004년까지 전북대 강단에 선 이 교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주요 역사에서부터 종교개혁 등의 서양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

퇴임 이후에도 15년을 관련 분야에 전착하며 그의 인생에 마지막이 될 연구서들을 펴낸 것이다.

여든에 접어든 저자는 1월 펴낸 '이규하 교수 논문집-원로 역사학자의 독일 현대사 연구'를 통해 전쟁을 화두로 독일 내 역사적 흐름은 물론, 당시 독일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짚었다.

이 교수는 직접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 발굴한 희귀 자료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훌륭한 독일사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3월에 펴낸 '유럽의 종교개혁과 신학 논쟁'은 유럽 종교개혁 전반과 함께 가톨릭과 개신교의 유럽 최고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을 적었다.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온 것들을 엮어 한편의 책으로 내면서 스스로 기독교 신자인 이 교수가 기독교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사람들과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쓴 책이다.

스스로도 연구 인생의 마지막 연구서라고 말하는 '서양 근세 초의 새로운 모습'은 가장 최근 나온 책이다. 이 책은 복잡 다양한 사건이 점철된 16~17세기 근세 초 유럽의 역사를 5부 300쪽에 걸쳐 다루고 있다. 특히 황제와 교황의 대립,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교황 구금, 루터의 종교개혁의 여파로 일어난 1년 내 10만 명 이상의 농민이 죽은 독

일어권(독일, 오스트리아)의 농민전쟁,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30년 전쟁 등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았거나 피상적으로만 다루었던 귀한 자료와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규하 명예교수는 "오랜 세월 서양사 연구에 매진하면서 그동안의 나의 연구와 경험 등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을 다해 책에 담았다"며,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의 연구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책들을 남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1964년 전북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현대사연구소, 베를린자유대학교 연구원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서양사학과 1급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모두 아홉 권의 역·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19년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난 4월 24일 공고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